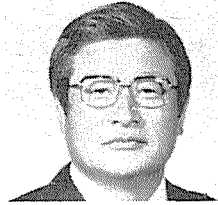


국력의 伸張은 電子産業 高度化에 있다.



許 愼 九
(株)金星社 代表理事

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고 1982年 새해를 業界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해는 數年동안 持續되어 온 不況의 늪에서 벗어나 外形의 伸張, 収益性 改善 등 다소나마 成果를 이룩한 해였다. 특히 家庭用 電子器機 業體와 이와 關聯된 部品業體는 컬러TV 売出에 힘입어 매우 좋은 成果를 거두었을 것으로 본다.

한편 電子工業振興法 및 施行令의 改正, 電子工業振興基金의 造成, 半導體工業育成을 위한 技術開發 支援 方案 등이 마련되어 電子工業은 今年부터 시작되는 經濟社會發展 第5次 5個年計劃 중 國家의 核心事業의 하나로서 크게 發展, 成長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政府는 우리나라 電子工業을 輸出實積에서 볼 때 現在의 10位圈에서 86년에는 5位圈으로 끌어올릴 計劃이다. 이를 達成하기 爲하여는 漸進的으로 生産能力을 擴大해 나가는 한편 國際競爭力 強化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60年代 및 70年代의 우리나라 電子工業은 低賃金에 바탕을 둔 勞動集約的인 家庭用機器와 部品 위주로 成長하여 왔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低賃金의 메리트(Merit)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歐美 先進國의 輸入規制 強化로 앞으로는 技術集約的인 産業用機器와 半導體分野의 적극적인 育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금년은 우리 業界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해이며, 電子業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本人은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披瀝하고자 한다.

첫째는 技術開發을 爲한 投資與件을 確固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製品의 高級化, 多樣

化, 高附加價值 製品의 生産, 競爭力 向上이니 하는 것은 모두 技術開發을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며 技術競爭의 時代로 發展된 지금, 技術開發投資를 經營與件이 나쁘다고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 는 發展할 可能性이 없다.

多幸히 지난해에는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가 새로이 發足되어 특히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에 많은 寄與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政府의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서는 電子工業을 世界 5位圈으로 發展시키고 이를 위한 振興基金의 造成과 함께 半導體, 컴퓨터 등 核心 技術의 研究開發에 많은 力點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에 거는 企業의 기대는 곧 參與에 의한 노력을 의미하며, 스스로의 研究開發 投資能力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研究 및 技術開發投資 財源은 기존의 比較優位 事業分野에서 創出된 「利益」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존 事業分野에서의 生産性 向上이 바로 技術開發 投資能力을 培養시키는 原動力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82年은 이를 바탕으로 한 研究開發投資가 深化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輸出增大 基盤을 계속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經濟는 輸出增大를 효과적으로 遂行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先進 開發途上國의 地位에 오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輸出에 의한 經濟成長은 계속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주된 역할을 電子工業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輸出實積은 지난해 23億弗에서 올해에는 31億弗로 그 目標가 增大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沈滯된 貿易環境은 今年에도 急激한 好轉을 기대 할 수 없고 보면 輸出市場 浸透戰略

에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市場多邊化를 위하여 中南美, 東南亞, 아프리카 등 新市場 開拓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고 이미 推進中인 海外現地 生産 体制를 조속히 실현하며 技術輸出과 플랜트 輸出 등 輸出形態의 多樣化도 구체화 되도록 戰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企業戰略의 지원을 위한 金融의 國際化가 계속되어야 하며, 國際的인 眼目的 세일즈맨은 물론 經營人을 養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로는, 內需市場의 基盤이 보다 堅固해져야 할 것이다. 日本의 競争力은 生産性과 技術力에서 優位를 確保할 수 있게 된 데 있다고 하지만 國內市場이 이를 消化 吸收할 수 있었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이와같이 産業의 發展은 市場基盤이 確固해야만 하며 현재와 같은 脆弱한 內需市場 基盤으로 인해 國際競争力의 強化가 지연되는 點도 看過될 수 없는 것이다. 1. 14 經濟活性化 措置는 이런 측면에서 內需市場의 活氣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적인 補完措置가 뒤따를 때 景氣는 活性化 될 수 있을 것이다.

家電製品은 대부분 耐久性 消費材로서 그 性格上 長期分割販賣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社會가 漸次 信用社會로 發展하게 됨에 따라 製品의 販賣로부터 販賣代金の 回收時点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

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販賣構造上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當國의 流通金融에 對한 關心을 期待하는 바이며 需要者金融의 定着, 生活化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消費者에게 必要한 購買資金을 支援함으로써 製品販賣를 振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一部 메이커에서 구체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팩토링金融에 對한 政策支援 등 적극적인 配慮를 期待한다.

그리고 現行 特別消費稅와 有關한 問題點도 아울러 解決될 수 있기를 바란다. 즉, 家庭用 電機, 電子製品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文化의 利器로서 이미 生活用品化 하였던 데도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高率의 特別消費稅를 賦課, 製品價格을 높임으로써 消費需要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메이커로 하여금 販賣代金 回收에 關係없이 製品 出荷 翌月에 同稅金을 納付토록 하는 先納制度를 採択하고 있어 메이커의 資金負擔까지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컬러T.V, 冷蔵庫, 洗濯機 등에 대한 特別消費稅率은 더욱 引下 調整되어야 할 것이며, 特別消費稅 납부는 販賣代金の 回收時点으로 變更되어야 하겠다.

電子工業의 앞날은 무한하며 매우 밝다. 82年을 새로운 跳躍의 발판으로 삼아 政府·企業 모두가 하나가 되어 總力 매진할 때인 것이다.

수출경쟁에 총력경주는 경제발전 앞당긴다.